

일제하에서 간행된 유일한 우리말사전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⑥ -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李秉根

서울대 교수·국어학

사전 편찬의 얼룩진 역사

누가 뭐라 해도 간행된 국어사전으로는 文世榮이 편찬한 「朝鮮語辭典」(1938)이 우리나라 최초의 것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이는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되 우리를 위한 사전이라는 점에 한정시킨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文世榮의 사전을 언급함에는 꺼림칙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이 있다.

“桓山이 그날그날의 激務에 부닥이며, 밤이 머는 집에서 辭典編纂을 위한 카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안 靑嵐 文世榮씨가 매일 밤 桓山宅을 내방하여 작업을 함께 하던 중, 일의 진척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靑嵐은 桓山과 관계를 끊고 자기 단독의 명의로 「朝鮮語辭典」을 출판하였다. 그 재료나 原稿(카드)의 殆半은 실로 桓山의 손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은 一石 李熙昇선생의 「人間 李允宰」(1967)라는 글에 실린 것이다. 이러한 秘話는 桓山 李允宰선생이 五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에도 자주 이야기되곤 했다 한다. 文化民族으로 부끄럽지 않은 국어사전을 갖고자 온갖 노력을 다해오다가 최초로 간행된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이 이런 얼룩진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은 환산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민족에게도 정말 서글프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사전이 간행된다면 그 사전은 부분적으로는 흔히 讀解를 위한 註釋의 기능을 가지지만,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사상과 감정을 익혀 개성있는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적 계몽적 기능으로부터 나아가 사회적 기능까지 사전이 담당한다면 사전의 간행이란 개인적 기능에서 나아가 문화사적으로 사회사적으로 크나큰 의의를 지닐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의 편찬에 부끄러운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간행은 문화사적으로 사회사적으로 크나큰 의의가 없을 수는 없다. 讀者들은 사전을 활용하여 사전의 규범적이고도 통일적인 정확한 언어지식을 획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 근현대사와 책의 사회사」라는 연중기획에 관한 책의 목록선정을 위한 좌담회에서 김윤식교수는 “「우리말본」과 함께 1938년에 한글사전으로 처음 모습을 보인 「문세영 사전」도 일제하에 우리말을 지켜낸 사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전은 영향력을 따질 필요도 없이 유일한 국어사전

으로 일제시대를 넘겼습니다. 일석선생은 이 사전이 원래 이윤재가 만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정작 이윤재의 이름으로 사전이 나온 것은 해방 이후였습니다. 북한에서도 해방 이후 이윤재사전을 쓰다가 6·25가 지나서야 자신들의 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라고도 하였다. 일제하에서의 유일한 사전이었던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은 분명 이윤재와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윤재가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감옥에서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제자이자 사위였던 金炳濟가 이윤재의 사전카드를 정리하고 김고 보태어 간행한 「표준조선말사전」(1947)은 해방 뒤에 이루어진 첫번째의 사전이기도 한데, 이미 초판 발행 이듬해에 수정정보판을 낸 바 있는 문세영은 해방 이듬해에 자신의 이름을 빼고서 조선어사전간행회의 이름으로 다시 출판을 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 두 사전은 당시에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것이었던 셈이다.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은 1947년에 그 첫째권이 간행되었으나 6·25를 거쳐 1957년에야 전 6권이 완간되었던 것이다.

남북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우선 김병제가 엮은 이윤재의 「표준조선말사전」을 이용하면서 급한대로 「조선어소사전」(1956)을 내고서는 드디어 「조선말사전」(1960~2) 전 6권을 넘으로써 우리의 「조선말큰사전」 전 6권과 맞먹는 사전을 가지게 되었다. 일제하에서의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최대사업의 하나였던 사전편찬은 문세영과 이윤재 사이의 일그러진 역사를 지녔고, 이 역사는 다시금 남북분단의 비극을 반영하는 데로 이어졌던 것이다.

사전편찬의 애국계몽적인 노력

조선시대의 문자생활은 한문 국한문혼용 및 국문전용의 세가지가 독서층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되었다. 개항기 이전까지는 그러나 국문표제어를 올린 사전은 없었고 여전히 한자 중심의 사전 뿐이었다. 「東國正韻」 「奎章全韻」 등과 같은 한자음 중심의 발음사전들이나 「譯語類解」 「同文類解」 「夢語類解」 「倭語類解」 등의 漢字 내지 漢語 중심의 西學관계 對譯辭典들은 특수사전으로 한정된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實學時代 이후의 많은 物名考類 語專集들은 모두 필사본으로 전해를 뿐 간행된 바가 없어서 아무런 사회적 의의를 지니지는 못했다.



1894년 11월 高宗이 法律勅 總以國文孝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이란 칙령을 발표하여 국문을 위주로 하되 한문이나 국한문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획기적인 어문정책이었다. 조선시대의 정통을 현실화하면서 공·사문서에까지 확대시킨 정책이기는 하나 그래도 국문을 위주로 함으로써 그 이후의 개화기 교과서들이 국문을 위주로 한 국한문혼용체로 대체로 간행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國漢會語」(1897)라는 國語→漢字·漢文的 對語辭典이 처음으로 시도되기도 하였고 周時經에 의하여 사전편찬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서 國文·語文的 정리에 의한 愛國啓蒙 내지는 民族의 團合心 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대체로 語文民族主義의인 愛國啓蒙思想에 입각한 실천적 성격의 것이었다. 비록 統監府 아래에서 일본인들의 감시 속에서 진행된 일이라는 하나 당시 學部에 國文研究所(1907~9)를 두어 맞춤법의 통일안을 위한 國文整理를 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1년여에 걸쳐 발행되었던 일간지 「大韓民報」(1909. 6. 2~1910. 8. 18)에서 여러 어휘정리와 함께 짝이 났다. 우선 어휘정리를 위하여 「新來成語」(問答)(2호~136호) 「名詞輯要」(90호~165호) 「俚訓覺非」(창간호~90호)의 난을 두고 연재하였는데, 새로운 관계개혁과 법령제정에 따른 어휘보급을 위한 어휘풀이가 「新來成語」였고 고유어에 정확히 해당되는 한자어의 정리가 「名詞輯要」였으며 字義에 따라 漢字의 訓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 「俚訓覺非」였

다. 이와같이 다방면으로 어휘정리를 시도한 「大韓民報」는 이어서 「辭典研究草」(1910. 1. 16~5. 10)를 한 기자의 노력으로 연재하였는데, “人이 有하면 語가 必有야 其情을 相通하며 國이 有하면 國語가 有야야 本有純粹의 精義를 表現하니 故로 國이라 稱호고 明確호 國語의 辭典이 不具야야 言語의 向背가 홀론 홀진 디었지 文明호 民族이라 可謂호까”라는 이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文明民族 내지 文明國家가 되기 위해서는 辭典의 편찬·간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셈인데, 이는 周時經 이후의 일반적인 당시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大韓民報」의 「辭典研究草」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약 4개월 동안 연재되다가 멈추었고 몇달 뒤 「大韓民報」가 더이상 발행되지 못하고서 國恥를 맞고 말았다.

1910년 10월 1일에 朝鮮總督府가 문을 열면서 植民統治의 일환으로 사전편찬이 계획·추진되었다. 총독부에서 制度 및 旧慣에 관한 조사를 계획한 속에 朝鮮語辭典의 편찬이 들어있었는데, 이듬해 4월부터 語詞의 수집이 박이양·현은·송영대·김동희 등의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작업이 계속됨에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편찬 및 심사를 위해 추가되기도 하였는데, 주도적인 작업을 행한 사람은 일본인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이었다. 1918년 최종적으로 정리된 161권 37책의 「朝鮮語辭典原稿」가 16명(한국인 10명, 일본인 6명)에 의해 심사·검열을 받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日鮮인 양쪽을 위해서 우리말 표제어에 대해 우리말과 일본말 두 언어로써 풀이한 형식으로 국어사전과 한일대역사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을 거치고서 1920년에 「朝鮮語辭典」이 막상 나왔을 때에는 우리말 풀이는 없어서 한일대역사전의 성격만이 남게 됨으로써 그나마 국어사전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가 세워져 본격적인 일본의 식민정책이 전개됨에 六堂 崔南善은 朝鮮光文會를 세워 많은 古典들을 재간하여 보급하였다. 조선광문회는 光明과 存喪의 일대전기를 맞이하여 修史 理言 立學의 삼대기치를 내세우면서 설립되었는데, 사전편찬과 문법정리를 理言의 양대 안목으로 보고 사전편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에 따라 대역사전인 「新字典」을 간행할 때에 주시경과 그의 제자 김두봉이 국문풀이를 담당하게 하

였고, 또한 조선광문회는 순수한 국어사전인 「말모이」를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김두봉·권덕규·이규영 넷이서 편찬하게 한다. 이 사전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을 때에 주시경은 세상을 떠났고(1914년), 이의 사전편찬사업을 이어받은 김두봉도 끝맺지 못하고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되어 끝내 「말모이」는 간행되지 못하고 그 일부 원고만 전해오게 되었다. 그외에도 박승빈 중심의 계명구락부(최남선, 정인보, 변영로, 임규, 양건식, 이윤재) 및 이상춘 등에 의해서도 사전편찬이 준비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 1929년 10월에 조선어사전편찬회가 108명의 발기로 조직되었는 바, 1936년에는 이 사업이 조선어학회로 이관되었다. 이극로, 이윤재, 정인승, 한징, 이중화(권승욱, 권덕규, 정태진) 등이 집필위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한글맞춤법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1936)에 마치고서 외래어표기법을 제정하는 중에 배재고보 교원이던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던 문세영이 이윤재의 도움을 입어 「조선어사전」을 간행함으로써 우리민족 최초의 근대적인 국어사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조선어사전」이 간행됨으로써 “우리 조선민족은 언어를 소유하고, 또 문화를 소유하면서 오날까지에 아직 사전 한 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하므로 조선의 언어는 극단으로 문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요, 또 조선민족의 문화적 생애는 오늘과 같은 황폐를 이루게 된 것이다”라는 한스러움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었다. 해방 2년 뒤에 이윤재의 「표준조선말사전」이 나올 때까지 근 10년간 이 사전이 그 수정증보판과 함께 유일한 것이었다.

규범적이고도 종합적인 「朝鮮語辭典」

문세영의 이 사전은 기본적으로는 규범사전이지만 그 표제어들을 보면 고유어, 이두 및 한자어·외래어, 학술용어, 그리고 姓과 같은 고유명사, 부분적인 고어나 사투리 등 다양하게 구성됨으로써 종합적인 성격까지 띠게 되었다. 말하자면 어원이나 역사적 변화과정을 밝히지 않고서 현대어 특히 “서울 중류계급에서 쓰는 말”을 중심으로 한 규범·표준어 사전이면서 당시의 다양한 언어변이 내지는 전통

까지 고려한 종합사전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서울말이 표제어의 대상이 되고 종합적인 표제어들이 사전에 반영된 것은 주시경 중심의 사전들에서도 그러했고 총독부의 사전에서도 그러했다. 단어의 수준을 넘는 속담·성구까지 포함시킨 점은 註釋의 사전의 성격까지 겸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총독부의 사전에는 727개의 이두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옛날의 관습·제도를 조사·이해하여 그들의 식민정책에 이용하려던 의도에 따른 것인 데도 불구하고 문세영의 사전은 註釋의인 기능만을 고려하여 그대로 이를 모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개화기 이후 특히 統監府 설치 이후 새로운 문물제도를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문세영의 사전에서는 이러한 한자어가 상당히 울러 있다. 예컨대 우리말 ‘食口, 取利, 鑄字’ 등에 대한 일본말 ‘家族, 營業, 活字’ 등은 19세기까지는 사전에 올리지 않았는데, 총독부와 문세영의 사전에서 정착되었고, ‘直錢, 本金, 病身, 出入, 手標’ 등에 대한 일본말인 ‘現金, 原價, 不具者, 外出, 證書’ 등은 문세영의 사전에 와서 오르게 된 예들이다. ‘工役’에 대한 ‘工事’, ‘看役’에 대한 ‘工事監督’, ‘保’에 대한 ‘保證’ 등이 일본말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한자어인 ‘保’를 일본말인 ‘保證’의 준말로 처리한 것이 문세영의 사전이었는데, 현재의 대표적인 사전들에서조차 이러한 처리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은 또 다시 우리를 아연케 하고 있다. 때로 우리 한자어에 대해 풀이를 하고 일본 한자어에서는 우리의 것을 찾아보도록 하였거나 같다고 처리한 것은 그런대로 위안이 되기는 한다. 개화기 이후 중국식의 한자어 ‘德語, 法語’ 등은 ‘덕국말, 독일말’과 ‘법국말, 프랑쓰말’로 각각 풀이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식 한자어 ‘獨語, 佛語’ 등이 아직은 확고한 자리를 굳히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른다.

새로운 시대적 변동에 따른 새로운 어휘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언어사회 현상이기도 하다. 학문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술용어의 범람,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에 의한 새로운 전문용어의 범람, 그리고 정치·경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용어 등의 범람 속에서 사전이 새로운 용어의 개념을 알려 주어야 하는 기능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정책 아래에서 슬하게 굳어져 버

린 일본말을 전래적인 우리말과 비교하여 걸러내지 못하고서 표제화하고 풀이하면서도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사전을 편찬한다고 주장한다면 서로 어긋난 태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차라리 기술적인 성격의 사전이라면 ‘保’는 우리말로 풀이하고 ‘保證’은 일본말로 차용된 것임을 밝혀 주고서 그 사용 선택을 독자에게 맡겨 두면 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총독부의 官報 첫호를 통해서 ‘食口’는 朝鮮語요 ‘家族’은 그에 해당되는 日本語였음을 대조적으로 보여 그들의 식민통치의 工務에 참조하게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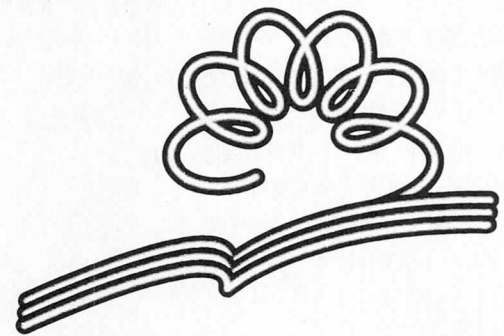
「朝鮮語辭典」의 사회사적 의미

이윤재와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총독부의 사전형식을 상당히 모방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그것이 우리의 최초의 간행된 사전이었다. 이 사전이 나오기까지는 韓·日對譯辭典인 총독부의 「조선어사전」을 비롯한 몇몇 對譯辭典들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당 외국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그나마 이용할 사전이 하나도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우리말에 대해 우리말로 풀이한 국어사전을 보려면 일제하에서는 유일한 국어사전이었던 이 문세영의 사전을 이용하는 길뿐이었다. 이 사전 간행 이듬해에 수정증보판을 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언어가 민족문화의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분별한 일본말의

수용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언어변이를 포함한 종합사전으로서의 문세영의 사전은 분명히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언어지식을 통일적으로 제공함에 주석적인 기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 말기에 우리말 교육까지 박탈당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함에 이 유일했던 사전은 더욱더 큰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해방 뒤에 이윤재의 사전이 나오고 다시 1949년에 문세영의 수정증보판이 재간되면서는 두 사전은 많은 독자들의 책상 앞에 늘 놓여 있던 기억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다. 신기철·신용철의 사전과 이희승의 사전 등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일이었다.

'93 책의 해



| 책 | 을 | 떠 | 자 | 미 | 래 | 를 | 열 | 자 |